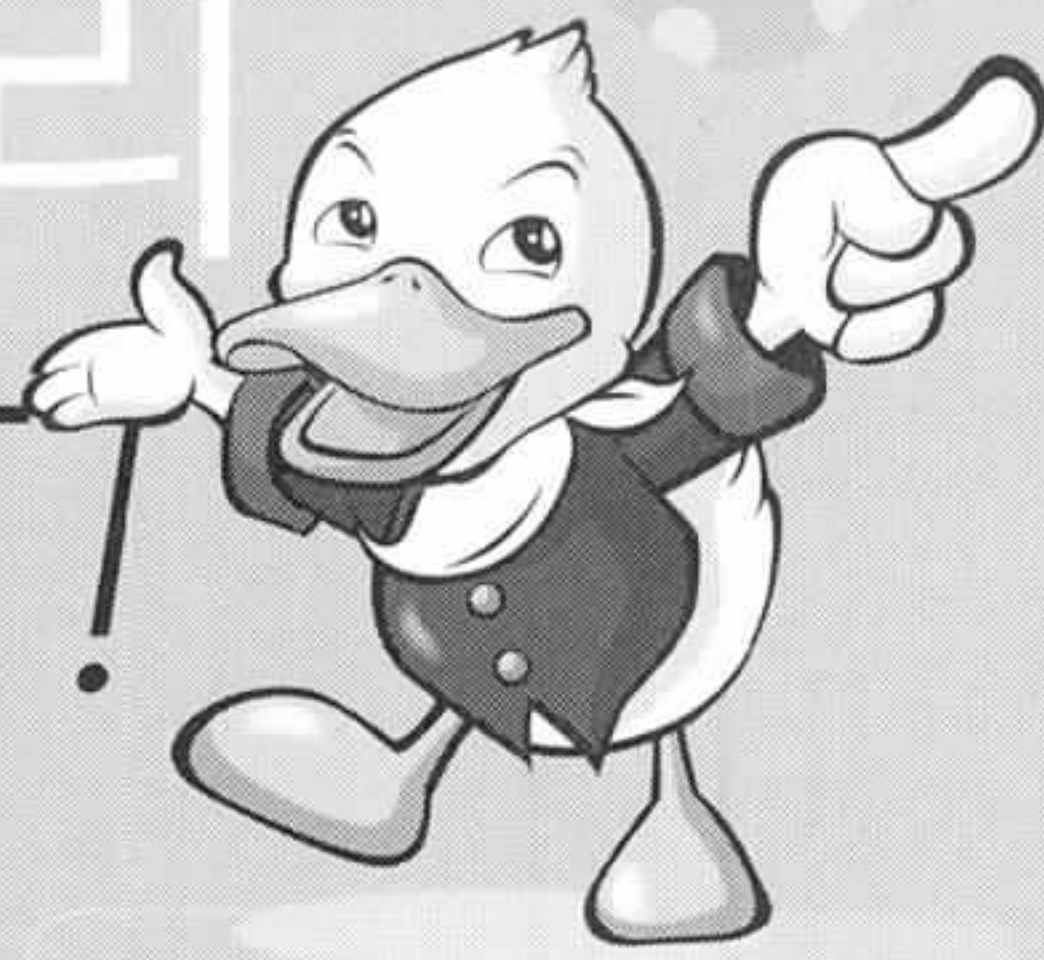


오리의 부화관리 POINT!



오리의 부화 기간은 28일로, 닭과 같이 인공부화기를 이용할 경우 25일간 발육기, 3일간 발생기에서 부화를 시킵니다. 발육기와 발생기가 같이 있는 부화기의 경우는 25일간은 전란을 해주고 3일간은 전란을 하지 않고 부화를 시킵니다. 부화시 유의사항은 온도, 습도 및 환기가 중요합니다.

부화시 온도는 37.8℃(화씨100도)를 유지해 주고, 상대 습도는 70~80%를 유지해야 합니다. 환기는 알이 호흡할 수 있으며, 내부 온도 및 습도의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히 해야 합니다.

부화 후 어린오리는 32.2℃ 정도(상대습도60~70%) 유지되는 곳에서 사육을 하며, 주당 1~2도 정도씩 낮추어 주면서 외부 온도와 같아지면 급온을 중지하고 일반 사육장으로 내보내도록 합니다. 먹이는 일반 시중 사료회사에서 3종류(어린오리, 육성오리, 산란오리)의 배합사료가 시판되므로 구입해서 급여할 수 있으며, 오리는 잡식성 동물이므로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사육도 가능하지만, 영양 포물러가 효율적으로 짜여져 생산된 배합사료 급여 시보다 육질저하가 예상될 수 있으니 되도록 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오리의 경우는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는 성장단계를 어린오리(0~6주), 육성오리(7~21주), 산란오리(22주~)로 구분하며, 사료는 모두 펠릿사료이나, 어린오리사료에서는 크럼블사료도 나옵니다. 사료에서 중요한 것은 총에너지와 조단백질함량으로 일반배합사료에는 성장단계에 알맞은 수준으로 들어있으며, 사료를 자체에서 생산하여 급여시는 분석을 통해서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어린오리(에너지 : 2,900kcal, 조단백질 22%), 육성오리(2,800kcal, 16%), 산란오리(2,900kcal, 17%)).

사료의 급여량은 사육오리의 품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육용으로 사육시는 자유 급여를 하고, 알을 받아 판매 또는 부화를 할 경우는 제한 급여를 해서 육성하는 것이 좋습니다.